

권위주의 체제의 권력 승계 모델과 정권 내구성 비교 분석*

— 북한, 중국, 쿠바, 이란의 사례를 중심으로 —

권지민** · 구분윤*** · 정호경****

• 요 약 •

현대 권위주의 정권은 전 지구적 민주화의 압력과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도 붕괴하지 않고 정권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권위주의 국가들이 승계 시기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정권 내구성을 연장하기 위해 어떠한 체제 방어 기제를 진화시켜왔는지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북한, 쿠바, 중국, 이란이라는 각기 다른 역사적 경로와 이데올로기를 지닌 4개국을 선정하고 교차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권위주의 정권의 생존은 승계의 규범화 수준과 정당성의 원천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적응적 진화를 거듭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첫째, 북한은 수직적 가문 세습을 통해 엘리트 계층을 사활적 운명 공동체로 결속시켰다. 둘째,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에서 라울로 이어지는 혁명 1세대 내의 수평적 형제 승계와 군부의 경제적 지대 독점을 결합하여 1인 지배의 붕괴 위기를 넘겼으며, 중국에는 관료제적 집단 지도 체제로 연착륙하는 성공적인 과도기 모델을 제시했다. 셋째, 과거 중국 공산당은 파벌 간 권력 분점과 성과주의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당내 승계 규범을 확립하여 내구성을 극대화했으나, 최근 시진핑 1인 지배 체제로 회귀하며 승계의 룰이 파괴되었다. 넷째, 이란은 법학자 통치론이라는 신권적 지명과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경제적 유착을 통해 이중 권력 구조를 유지해 왔으나, 2026년 미국-이란 전쟁이라는 통제 불능의 외부 충격 속에서 기존 규범을 상실하고 군부가 주도하는 세습적 승계로 급격히 퇴행함으로써, 이데올로기가 대중의 세속화와 괴리될 때 체제가 어떻게 폭력화되는지를 실증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4개국의 비교 분석을 종합하여, 현대 권위주의의 생존 역학을 설명하는 권위주의 승계-내구성 다중 모델을 도출하였으며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 패러다임을 규명함으로써 비교정치학의 외연을 확장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권력 승계, 권위주의 내구성, 북한, 이란, 중국

* 본 논문은 육군3사관학교 부설 충성대연구소 2026년도 국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 육군3사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 1저자

*** 육군3사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 공동저자

**** 육군3사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I. 서론

제3의 물결(The Third Wave)로 대변되는 전 지구적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도 21세기 현대 정치는 붕괴하지 않고 오히려 진화하며 견고하게 유지되는 다수의 권위주의 정권과 직면해 있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역사의 종언을 선언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최종적 승리를 예견했을 때, 대다수의 학자들은 북한, 중국, 쿠바,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외부의 경제적 제재와 내부의 구조적 모순을 견디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붕괴하거나 민주화로 이행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이들 국가는 각기 다른 체제적 위기를 극복하며 정권의 안정성을 고도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앤드류 네이션(Andrew J. Nathan)이 제기한 권위주의의 복원력 개념은 이처럼 붕괴의 위협 속에서도 제도적 적응을 통해 생존해 내는 현대 권위주의의 속성을 정확히 포착한다.¹⁾ 이러한 권위주의 체제의 생존과 내구성을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시험대는 바로 기존 통치자의 사망이나 퇴진에 따른 권력 승계 국면이다. 민주주의 체제가 헌법, 선거, 의회라는 고도로 제도화된 틀 안에서 예측 가능한 권력 이전을 수행하는 것과 달리, 권위주의 정권에서 최고 권력자의 부재는 엘리트 간의 권력 투쟁, 군부의 개입, 그리고 억눌려 있던 민중의 봉기를 촉발하는 가장 취약한 '권력의 공백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권위주의 정권이 이 승계의 딜레마를 어떻게 통제하고 제도화 혹은 상징화해 내는가는 곧 정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생존해 있는 대표적인 권위주의 국가들은 각자의 역사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배경에 맞춰 독특한 승계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이 치명적인 위기를 오히려 정권의 결속력을 다지고 통치 정당성을 재창출하는 기회로 전환해 왔다.

현대 권위주의 국가들이 채택한 권력 승계의 방식과 그것이 정권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밀란 스볼릭(Milan W. Svoblik)이 제시한 권위주의 통치의 본질적 딜레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볼릭에 따르면, 권위주의 독재자는 항상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한다. 하나는 피지배 대중으로부터 오는 반란의 위협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을 지지하는 측근 엘리트들로부터 오는 쿠데타의 위협이다. 승계 국면에서 가장 폭발력을 가지는 것은 후자인 엘리트 간의 권력 공유 문제이다.²⁾ 제이슨 브라운리(Jason Brownlee)는 이러한 엘리트 간의 파괴적인 경쟁을 억제하고 정권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1) Nathan, Andrew J. 2003. "Authoritarian Resilience", *Journal of Democracy*, Vol.14, no.1, 6-7.

2) Svoblik, Milan W. 2012.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87-92.

핵심 기제로 강력한 집권 정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승계의 안정성은 독재자 개인의 카리스마적 역량보다는 정당이라는 제도적 역량에 달려 있으며, 강력한 정당은 후계 구도를 둘러싼 엘리트 간의 경쟁을 제도 내의 규칙으로 흡수하여 정권 전체의 붕괴를 막는 완충 장치로 기능한다.³⁾ 이러한 관점에서 바바라 게데스(Barbara Geddes) 역시 권위주의 체제를 개인독재, 군부, 일당 체제로 분류하면서, 엘리트 간의 협력 유인이 구조적으로 가장 높게 설계된 일당 독재 체제가 가장 긴 생존 기간을 향유한다고 실증한 바 있다. 즉, 권력 승계가 예측 가능한 규범과 엘리트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수록 정권의 내구성은 비례하여 상승한다는 것이다.⁴⁾

이러한 정당 중심적이고 제도화된 승계 모델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사례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 공산당(CCP)은 마오쩌둥 사후 극심한 혼란을 겪은 뒤, 덩샤오핑의 주도 하에 ‘집단 지도 체제’와 ‘격대지정(隔代指定, 차차기 지도자를 미리 지명하는 관행)’,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연임 제한이라는 고도의 당내 규범을 확립했다. 이는 권력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등 당내 다양한 파벌들이 예측 가능한 규칙 안에서 권력을 분점하고 승계하도록 만드는 정교한 포섭기제로 작동했다. 앤드류 네이션은 이 과정을 제도화의 성공으로 평가하며, 파벌 간의 합의제적 승계가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정권 안정성의 근간이 되었다고 분석했다.⁵⁾ 비록 최근 시진핑 3연임 이후 이러한 제도적 승계 규칙이 무력화되고 1인 지배 체제로의 회귀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제도화된 승계가 무너졌을 때 권위주의 정권이 장기적인 내구성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불확실성과 엘리트의 잠재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반증 사례로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중국의 엘리트들은 승계의 예측 가능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숙청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정권 내부의 결속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제도적 합의 모델과 대척점에 서 있는 가장 극단적이면서도 고유한 승계 모델은 바로 북한의 수직적 가문 세습이다. 스미스와 프리드먼(Benjamin Smith & Joseph Fridman)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혈연을 매개로 한 세습 독재는 일반적인 개인 독재나 군부 독재에 비해 정권의 생존 확률을 현저히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세습이 단순히 전근대적인 잔재가 아니라, 권위주의 권력 투쟁의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3) Brownlee, Jason. 2007. *Authoritarianism in an Age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4-38.

4) Geddes, Barbara. 1999. "What Do We Know About Democratization After Twenty Year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2, 131-134.

5) Nathan, Andrew J. 2003. "Authoritarian Resilience", *Journal of Democracy*, Vol.14, no.1, 12-16.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백두혈통’이라는 가문의 카리스마를 수령제라는 독특한 통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혈통의 신비화를 이루어냈다.⁶⁾ 정성장의 북한 정치 연구에서도 나타나듯, 북한의 3대 세습 과정은 노동당 조직지도부 등 핵심 기구를 통한 체계적인 엘리트 숙청과 사상 통제, 그리고 후계자의 군사적·정치적 업적 조작이 수반된 고도의 정치 공학적 산물이다. 북한 엘리트들에게 있어 가문의 운명은 곧 자신들의 운명과 동일시된다. 혈통에 의한 승계는 누가 다음 지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엘리트 내부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며, 후계자에 대한 도전 자체를 체제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함으로써 반대 파벌의 형성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⁷⁾ 북한 정권은 지속적인 경제난과 최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의 대남 노선 변경 등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도, 가문 세습이라는 강력한 승계 기제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엘리트 결속력을 강제함으로써 체제 내구성을 방어하고 있다.

한편, 쿠바와 이란은 승계의 또 다른 변이 모델을 제시한다. 쿠바의 사례는 혁명적 카리스마 지배에서 관료적·제도적 지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승계의 역학을 보여준다. 피델 카스트로에서 동생 라울 카스트로로의 형제 승계는 북한과 같은 수직적 혈연 세습이라기보다는, 쿠바 혁명을 함께 이끌었던 혁명 1세대 동지들 간의 수평적 권력 이양에 가깝다. 혁명의 정통성을 공유하는 형제간의 승계는 피델 사후의 권력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으며, 체제 전복을 노리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군부(FAR)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의 동요를 막아냈다. 주목할 점은 라울 카스트로 이후 미겔 디아스카넬로 이어지는 최근의 승계 과정이다. 이는 혁명 가문의 혈통이 아닌, 철저히 당 관료제와 행정적 성과를 거치며 검증된 제도적 엘리트로의 권력 이양을 의미한다. 쿠바는 혈연을 통한 혁명 1세대의 수명 연장이 끝나는 시점에서, 정당 중심의 승계 모델로 연착륙을 시도함으로써 정권의 장기적 내구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⁸⁾ 반면 이란은 이슬람 혁명 이후 확립된 신권 정치와 제한적인 선거제도를 결합한 이중적 권력 구조 하에서 승계를 관리한다. 국가 최고 권력인 최고지도자(Rahbar)의 승계는 전문가 회의(Assembly of Experts)라는 성직자 기구를 통해 선출되는 형식을 취한다. 이는 권력 이전에 철저한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차기 지도자가 신의 뜻을 대리한다는 헌법적·신학적 권위(Velayat-e Faqih)를 바탕으로 군부(혁명수비대)와 정치권의 엘리트들을 복종하게 만든다. 종교적 교리에 기반

6) Smith, Benjamin and Joseph Fridman, 2016. “Dynastic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Vol.68, no.1, 101-105.

7) 정성장. 2011.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 이념, 기구』, 서울: 한울, 120-125.

8) LeoGrande, William M. 2012. “After Fidel: The Communist Party of Cuba on the Brink of Generational Change”,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44(4), 645-647.

한 승계의 제도화는 이란 체제가 겪는 만성적인 반정부 시위와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체제 자체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⁹⁾

이상의 사례 분석과 이론적 검토를 종합할 때, 우리는 현대 권위주의 정권의 생존 기제와 승계 방식에 관한 몇 가지 핵심적인 가설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권위주의 국가의 권력 승계 방식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단순한 지도자의 교체가 아니며, 그 자체가 정권의 내구성을 결정짓는 독립변수로 작용한다. 첫째, 권력 승계가 고도로 상징화되거나 제도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질수록 정권의 내구성은 크게 향상된다. 북한의 명문화된 수령 결사옹위 노선이나 이란의 헌법적 신권 통치, 그리고 과거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 규범 등은 모두 승계 과정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정당성을 창출하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작동했다. 둘째, 승계 과정에서 핵심 엘리트(군부, 당 간부 등)들의 기득권과 물리적 생존을 보장하는 ‘제도적 포섭 및 보상 기제’가 명확할 때 정권의 붕괴 가능성은 최소화된다. 엘리트들은 승계의 규칙이 깨어져 자신들이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공포보다, 현행 승계 모델에 순응함으로써 얻는 장기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할 때 현 정권을 결사적으로 호위하게 된다. 셋째, 승계 모델이 지닌 본래의 정당성이 약화되거나 체제 전환의 압력이 커지는 시점에서, 권위주의 정권은 구조적으로 정보 통제와 물리적 억압의 수위를 인위적으로 극대화함으로써 체제 내구성을 연장하려 한다. 이는 북한이 외부 정보 유입을 극도로 통제하며 사상전과 인지전을 강화하는 행태나, 이란이 허잡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결국 현대 권위주의 국가들은 선거라는 민주적 피드백이 부재한 한계를 승계 기제의 정교한 변형과 적응을 통해 상쇄하고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낸 특유의 승계 모델들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기능 부전에 빠지지 않는 이상, 외부의 압력만으로 이들 정권의 단기적 붕괴를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권력 승계 모델

현대 권위주의 정권이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도 체제를 유지하는 거시적 복원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력자의 교체 시기마다 정권의 존립이 흔들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의 부재에 있다. 다른 아셰모글루와 제임

9) Arjomand, Said Amir. 2009. *After Khomeini: Iran Under His Successors*, Oxford University Press, 35-42.

스 로빈슨(Acemoglu & Robinson)이 지적하듯, 민주주의 체제는 선거와 헌법이라는 외부의 독립적 제3자가 정치 행위자들 간의 합의를 강제하지만, 권위주의 체제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강제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적 예외 상태를 내포한다. 일상적인 통치기에는 독재자가 핵심 엘리트(당 간부, 군부, 치안 기구 등)에게 경제적 지대와 권력을 분배함으로써 엘리트의 충성을 구매하고 반란 유인을 통제한다. 그러나 기존 통치자의 물리적 수명이 다하거나 퇴진이 임박한 권력 승계 국면에 접어들면, 이 위태로운 균형은 급격히 붕괴한다.¹⁰⁾

이러한 승계의 병목 구간에서 폭발하는 핵심적 위기를 고든 툴록(Gordon Tullock)은 독재자의 딜레마로 설명한다. 권위주의 지도자는 자신의 생전에 잠재적 경쟁자가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능한 2인자를 끊임없이 숙청하고 권력을 철저히 사유화하려는 구조적 유인을 갖는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자신이 사라진 직후 권력의 공백을 평화적으로 메울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대안마저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명확한 후계 구도나 엘리트 간에 합의된 승계 규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체제를 떠받치던 엘리트들은 차기 권력 지형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은 물론 물리적 생존마저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한다.¹¹⁾ 스볼릭(Svolik)의 게임 이론적 분석에 따르면, 이때 엘리트들은 차기 지도자의 숙청 타겟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파벌을 형성하여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허수아비 지도자를 옹립하기 위해 무력 충돌을 불사하는 ‘최수의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된다.¹²⁾

따라서 권위주의 체제에서 성공적인 권력 승계란, 단순히 후계자의 얼굴이 바뀌는 과정이 아니라 엘리트들 사이의 파괴적인 지대 추구와 생존 투쟁을 억제하고 차기 지도부를 향한 충성의 궤도를 강제로 통일시키는 일련의 고도화된 정치 공학적 과정을 의미한다. 즉, 체제가 채택한 승계 모델이 차기 권력의 분배에 대해 엘리트들에게 얼마나 확고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가, 혹은 반란을 일으켰을 때의 비용을 얼마나 압도적으로 높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정권의 내구성이 결정된다. 승계의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한 체제는 내부 엘리트의 분열이라는 치명적 균열을 통해 민중 봉기나 외부의 개입에 취약해지며 단기적 붕괴를 맞이하게 된다.

위와 같은 엘리트 역학의 미시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 권위주의 정권들은 각

10) Acemoglu, Daron and Robinson, James A. 2006. *Economic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2-25.

11) Tullock, Gordon. 1987. *Autocracy*,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45-50.

12) Svolik, Milan W. 2012.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87-92.

자의 역사적 경로의존성과 이데올로기적 자원을 바탕으로 독특한 형태의 체제 방어 기제, 즉 ‘권력 승계 모델’을 주조해 냈다. 본 연구는 승계 과정에서 엘리트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권력의 정당성을 창출하는 핵심 매개체에 따라 이 모델을 세 가지 이론적 유형으로 범주화한다.

첫째, 권력 이전의 매개체를 혈연으로 한정함으로써 승계의 불확실성을 폭력적으로 제거하는 ‘가문 중심 세습 모델’이다. 벤저민 스미스와 조지프 프리드먼(Smith & Fridman)은 세습이 권위주의 엘리트 투쟁에서 가장 강력한 ‘셸링 포인트(Schelling Point, 초점)’ 역할을 수행한다고 분석했다.¹³⁾ 차기 지도자의 조건이 오직 특정 가문의 핏줄로 제한될 때, 엘리트 간의 ‘누가 다음 권력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 비대칭은 완전히 해소된다. 북한은 이를 ‘수직적 부자 세습’과 결합하여 극단화한 사례이다. 북한 정권은 단편적인 강압 통치를 넘어, 통치 가문의 핏줄을 유사 종교적 수준으로 신비화하는 고도의 인지전을 일상적으로 전개하여 당과 군 엘리트의 사상적 자율성을 박탈한다. 최고지도자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이 체제에서 가문의 몰락은 곧 핵심 계층의 물리적 절멸을 의미하므로, 승계 국면에서의 파벌주의나 체제 이탈 유인은 구조적으로 거세된다. 반면, 쿠바의 형제 승계는 혁명 1세대라는 제한적 그룹 내에서의 ‘수평적 권력 이양’을 통해 혁명의 카리스마를 연장하고, 관료제 중심의 합리적 지배로 이행하는 충격을 완화하는 과도기적 생존 전략의 성격을 지닌다. 이처럼 세습은 전근대적 병리가 아니라, 엘리트의 신뢰 딜레마를 단숨에 절단하는 매우 합리적인 독재의 생존 기제이다.

둘째, 강력한 정당과 관료제 조직을 기반으로 권력의 이전을 규범화한 ‘정당 중심의 제도적 승계 모델’이다. 이 모델은 특정 개인의 카리스마나 혈통이 아닌, 체도에 대한 엘리트들의 집단적 합의가 딜레마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마오쩌둥 사후 극심한 혼란을 학습한 중국 공산당은 격대지정(차차기 후계자 지명)과 최고지도자 연임 제한, 상무위원회를 통한 집단 지도 체제라는 고도의 당내 헌정 관행을 구축했다. 류상영은 이 모델이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등 당내 다양한 파벌들에게 차기 승계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력이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제공했다고 분석한다.¹⁴⁾ 승계의 룰이 명확하고 철저한 성과주의에 의해 관료적 이동이 예측 가능해질 때, 엘리트들은 정권을 파괴하는 쿠데타 대신 체제 내에서의 충성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 다만, 이는 제도의 독립성이 유지될 때만 유효하며, 특정 지도자가 권력 집중을 위해 기존의 승계 룰을 일방

13) Smith, Benjamin and Fridman, Joseph. 2016. “Dynastic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Vol.68, no.1, 101-105.

14) 류상영. 2015.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내구성과 엘리트 정치의 제도화”, 『중소연구』, 제39권 2호, 112-118.

적으로 파기할 경우 체제 내부에 막대한 억눌린 공포와 불신을 누적시켜 장기적 내구성을 훼손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다.

셋째, 초월적인 종교적 교리나 절대적 혁명 이념이 승계의 정당성을 강제하는 ‘신권적 지명 및 이념 모델’이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이 확립한 구조가 대표적이다. 세속적인 엘리트 갈등은 종교적 무오류성 앞에서 그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란은 헌법적 성직자 기구(전문가 회의)를 통해 차기 최고지도자(Rahbar)를 선출함으로써 권력 승계 과정 자체를 신의 의지를 대리하는 신성한 의식으로 치환한다. 아르조만드(Arjomand)에 따르면, 이 모델이 정권 내구성을 담보하는 실질적 동력은 종교적 권위와 물리적 강제력의 결합에 있다.¹⁵⁾ 승계 국면에서 분출될 수 있는 세속 엘리트의 도전이나 대중의 저항은 종교적 이단 행위로 규정되며, 체제의 핵심 무력 기구이자 막대한 국가 경제의 지대를 독점하고 있는 혁명수비대(IRGC)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된다. 즉, 신권 정치는 엘리트 내부의 이념적 결속과 폭력 기구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완벽하게 일치시킴으로써 승계의 위기를 돌파한다.

승계 국면을 전후하여 권위주의 체제가 직면하는 또 다른 중대한 위협은 기존 체제가 유지해 온 통치 명분과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의 고갈이다. 세습이나 제도적 합의를 통해 권력을 쟁취한 신임 지도자라 할지라도, 대중과 엘리트에게 자신이 통치해야만 하는 합당한 명분을 새롭게 제시하지 못하면 내구성은 급격히 저하된다. 이때 권위주의 정권은 단순히 내부의 억압 수위를 높이는 것을 넘어, 국가의 대외 관계나 거대 전략의 틀 자체를 급진적으로 전환함으로써 내부의 승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으로, 내부적 경제 실패나 통치 카리스마의 약화로 정권의 결속력이 흔들릴 때, 체제는 외부의 적을 새롭게 규정하거나 기존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재설정하여 엘리트와 대중의 시선을 외부로 돌린다. 과거 오랜 기간 민족주의적 통일을 체제 유지의 핵심 명분으로 삼았던 체제가, 승계가 거듭되며 발생한 내부 모순을 덮기 위해 돌연 전통적 이념을 폐기하고 상대국과의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전면 재규정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거대 전략의 전환은 단순히 대외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내부의 잠재적 반대 세력을 색출하고 군부 중심의 강경파 엘리트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산의 산물이다. 외부의 실존적 위협을 조작하고 인지전을 통해 대중의 공포를 극대화함으로써, 신임 지도자는 새로운 억압 통치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승계 과정의 딜레마를 억누르는 체제 방어 동력으로 삼게 된다.

15) Arjomand, Said Amir, 2009. *After Khomeini: Iran Under His Successo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5-42.

〈표 1〉 권위주의 체제의 3가지 권력 승계 모델 비교

도출된 모델	국가	핵심 기제 및 특징	내구성 확보
가문 중심 세습 모델	북한 쿠바	- 혈연을 승계의 유일한 조건으로 한정 - 가장 강력한 합의점 역할 - 엘리트 간 정보 비대칭 및 권력 투쟁 원천 차단	엘리트 신뢰 딜레마를 단숨에 해결하여 파벌주의 거세
정당 중심 제도적 승계 모델	중국	- 강력한 정당 및 관료제 조직 기반 - 승계 규칙의 규범화 및 제도화 - 엘리트들의 집단적 합의가 핵심	예측 가능한 성과주의 관료 이동으로 쿠데타 대신 체제 내 충성 경쟁 유도
신권적 지명 및 이념 모델	이란	- 초월적 종교 교리나 혁명 이념이 정당성 강제 - 종교적 무오류성 앞에서는 세속적 갈등 무효화	종교적 권위 + 물리적 강제력의 결합

출처: 저자 작성

III. 권위주의 정권의 권력 승계 사례 분석

1. 북한: 수직적 가문 세습

현대 권위주의 정권 중 가장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생존력을 보여주는 북한의 3대 세습 모델은, 처음 이 내용을 접하는 독자나 서구의 합리주의적 시각에서는 전근대적인 봉건 왕조의 잔재나 비이성적인 독재의 병리 현상으로 비칠 수 있다. 실제로 1994년 김일성의 사망과 2011년 김정일의 급작스러운 사망이라는 두 차례의 치명적인 권력 승계 국면에서, 대다수의 국제정치 학자들과 정보기관들은 극심한 경제난(고난의 행군)과 후계자의 카리스마 부족을 근거로 북한 정권의 단기적 붕괴, 군부 쿠데타, 혹은 대규모 민중 봉기를 예견했다. 그러나 북한은 밀란 스폴리이 지적한 권위주의 통치의 핵심 취약점인 엘리트 간의 '권력 공유 딜레마'를 '백두혈통'이라는 철저한 가문 세습을 통해 원천적으로 절단함으로써 정권 내구성을 완벽하게 입증해 냈다.

북한의 수직적 권력 승계는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좌를 물려주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정성장(2011)의 세밀한 북한 권력 구조 분석에 따르면, 이는 후계자를 '수령'이라는 반신반인(半神半人)의 절대적 이데올로기적 지위로 신비화하고, 노동당 조직지도부라

는 강력한 통제 기구를 통해 당과 군의 엘리트들을 사상적으로 개조하며 반대파를 물리적으로 숙청해 나가는 거대한 정치 공학적 궤적이다.¹⁶⁾ 가족간 세습은 독재 국가의 엘리트들에게 '누가 다음 지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완전히 해소해 주는 가장 확실한 합의의 초점으로 작동한다. 특히 2011년 김정은으로의 승계 과정은 김정일의 뇌졸중 발병 이후 불과 3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사회 내부에 '혈통'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었기에 다른 파벌이 형성되거나 대안적 지도자를 옹립할 명분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혈연 중심의 승계가 정권의 내구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핵심 엘리트 계층을 철저한 운명 공동체로 결박하기 때문이다. 현재 김정은 정권 아래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북한의 유일 사상 체계하에서 국가는 곧 수령이며, 수령의 가문은 곧 체제 그 자체이다. 따라서 백두혈통 통치 가문의 몰락은 엘리트들에게 있어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 기득권 상실을 넘어, 체제 붕괴에 따른 물리적 처형과 절멸을 의미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이 운명 공동체적 구조는 후계자 김정은의 초기 역량 부족이나 대북 제재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실패 속에서도, 엘리트들이 서로를 감시하며 체제 수호에 앞장서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내부 결속 기제로 작동했다. 장성택, 현영철 등 체제의 2인자 그룹이나 잠재적 위협 세력에 대한 잔혹하고 공개적인 예방적 숙청은 이들에게 '대안은 없다'는 공포를 각인시키는 의도된 극장 국가적 공포 정치의 일환이었다.¹⁷⁾

그러나 아무리 철저한 폭력과 혈연에 의존한 승계라 할지라도, 세대가 거듭될수록 혁명 1세대(항일 빨치산)가 지녔던 원초적 카리스마는 희석될 수밖에 없으며, 승계의 정당성 역시 자연스럽게 마모된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북한 전역에 뿌리내린 장마당의 확산과, 고난의 행군 시기 국가의 배급망을 경험하지 못하고 시장을 통해 자력갱생해 온 장마당 세대의 등장은 가문 세습의 정당성을 밑바닥부터 뒤흔드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다. 중국 등 외부 세계와의 밀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한국의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등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본주의의 번영과 자유를 시각적으로 증명하며 체제에 대한 거대한 인지 부조화를 유발한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 북한 정권은 단순히 물리적 억압 기구를 동원하는 수준을 넘어, 엘리트와 대중의 사고 체계 자체를 조작하고 마비시키는 전면적인 사상 통제를 권력 승계 이후 체제 방어의 최우선 거대 전략으로 채택했다. 박형중에 따르면, 북한은 일상적인 사상 투쟁 회의와 생활 총화를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국가의

16) 정성장. 2011.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 이념, 기구』, 서울: 한울, 135-142.

17) 고유환. 2013. “북한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와 지속가능성”, 『국제정치논총』, 제53집 3호, 28-33.

이데올로기를 낭송하게 하고 상호 비판하게 만듦으로써, 개인의 내면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국가가 철저히 점령한다.¹⁸⁾ 최근 김정은 체제가 외부 정보 유입을 막기 위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 일련의 초강경 법안들은 이러한 사상통제가 얼마나 절박하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북한 정권이 벌이는 정권 안정을 위한 조치의 가장 극단적이고 최신의 형태는, 수십년간 북한 체제 유지의 핵심 명분이자 헌법적 가치였던 전통적 ‘통일’ 노선을 폐기하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전면 재규정한 전략적 선회에서 확인된다. 이는 단순한 대남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정권 내구성 방어를 위한 고도의 심리적 조작이다. 남한의 문화적 연성 권력(Soft Power)이 체제 내부로 침투하여 백두혈통의 정당성을 허물고 청년층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김정은 체제는 남한을 동족이나 통일의 대상이 아닌 ‘영원한 주적’이자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외부 세계(남한)에 대한 맹목적인 공포와 적개심을 주입하고, 남한의 문화를 소비하는 행위 자체를 국가에 대한 반역이자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로 낙인찍어 사상적 오염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다. 후계자 시절부터 만성적인 경제 성과 부족에 시달려 온 김정은은 핵무력 고도화와 무력 충돌 위기의 상시화를 통해 전시 상태에 준하는 사회 통제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의 재규정과 인지 통제의 결합은 북한의 권력 승계 모델이 외부의 붕괴 압력을 이겨내고 스스로를 재생산해 내는 가장 중추적인 생존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2. 쿠바: 수평적 혁명 동시 승계

북한이 수직적인 가문의 혈연과 종교적 수준의 인지전을 통해 극단적인 1인 지배 모델의 내구성을 연장했다면, 쿠바는 혁명 카리스마를 공유하는 세대 내의 ‘수평적 권력 이양’을 통해 체제의 붕괴를 막아내고 최종적으로 정당 중심의 제도적 지배로 연착륙을 시도하는 ‘과도기적 승계 모델’의 정수를 보여준다. 권위주의 정치 체제의 생존 전략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교정치학의 귀중한 사례이다.

1959년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쿠바 혁명을 완수한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는 단순한 공산당 제1서기나 국가 평의회 의장을 넘어, 라틴아메리카의 반미 제국주의 투쟁과 제3세계 해방 운동의 상징적 구심점으로서 절대적인 카리스마적 권위를 행사했다. 피델의 통치는 헌법이나 당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전형적인 ‘카리스마적 지배’라고 할 수 있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루칸 웨이(Levitsky & Way)는 쿠바 정권이 지리적

18) 박형중. 2014. 『북한의 통치체제와 국가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55-61.

으로 불과 150km 떨어진 미국의 가혹하고 전면적인 경제 봉쇄 속에서도 살아남고, 1990년대 최대 후원국이었던 소련의 붕괴에 따른 국가적 파산 위기 속에서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혁명 투쟁에서 기원한 엘리트 간의 강력하고 원초적인 결속력’에서 찾았다.¹⁹⁾

그러나 카리스마적 지배는 본질적으로 치명적인 취약성을 내포한다. 지도자의 초인적인 역량과 대중적 인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물리적 수명이 다하거나 권력을 상실하는 순간 체제 전체의 정당성이 일거에 증발해 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2006년 피델 카스트로가 급작스러운 장 출혈로 인한 건강 악화로 권력 이양을 선언했을 때, 서방의 수많은 관측통들은 쿠바 엘리트 사회 내부의 권력 투쟁과 대중의 봉기로 인해 ‘포스트 피델’ 체제가 급격히 붕괴할 것이라 점쳤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쿠바 체제가 선택한 해법은 바로 친동생인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로의 권력 이양이었다.

언뜻 보기에 이는 북한의 가문 세습과 유사한 혈연 독재의 연장선으로 보이지만, 그 내부의 작동 논리는 완전히 달랐다. 라울 카스트로는 단순히 피델의 핏줄이라는 이유로 낙하산처럼 후계자로 지명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피델과 함께 1953년 몬카다 병영 습격을 기획하고 시에라 마에스트라 산맥에서 게릴라 투쟁을 이끈 ‘혁명 1세대의 공동 창업자’였으며, 혁명 이후 수십 년간 쿠바의 핵심 무력 기구인 쿠바 혁명무력부(FAR)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관리해 온 군부의 실질적 수장이자 국가의 2인자였다. 즉, 피델에서 라울로의 승계는 혈통을 매개로 한 세대 간 수직적 대물림이 아니라, 혁명의 정통성과 카리스마를 공유하는 최상위 엘리트 그룹 내부의 ‘수평적 권력 이양’이었다. 쿠바 엘리트와 대중에게 라울은 피델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정당한 합의점이었으며, 이 형제 승계는 지도자 유고에 따른 엘리트의 극심한 불확실성을 단순히 잠재우는 완벽한 위기관리 기제로 작동했다.²⁰⁾

이러한 쿠바의 수평적 형제 승계가 정권 내구성에 기여한 핵심 방어 기제는 철저한 군부 포섭과 이익의 동기화에 있다. 윌리엄 레오그란데(William M. LeoGrande)는 라울 카스트로 체제가 무혈입성하여 안착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로, 쿠바 군부 산하의 거대 국영 지주회사인 ‘가에사(GAESA, 기업 행정 관리 그룹)’가 경제에 미치는 장악력을 꼽는다.²¹⁾ 가에사는 쿠바 경제의 핵심 달러 박스인 관광업, 호텔, 항만, 무역, 대형 유통망의

19) Levitsky, Steven and Way, Lucan A. 2013. “The Durability of Revolutionary Regimes”, *Journal of Democracy*, 24(3), 11-15.

20) 하상식. 2015. “쿠바 권력승계와 체제변동의 정치적 역학: 피델 카스트로에서 라울 카스트로로의 이행을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 제17권 2호, 175-205.

21) LeoGrande, William M. 2012. “After Fidel: The Communist Party of Cuba on the Brink of

6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공룡 기업이다. 승계 과정에서 라울은 혁명무력부 출신의 최측근 군부 엘리트들을 가에사의 수장과 공산당 정치국의 핵심 요직에 전면 배치했다. 결과적으로 쿠바 군부는 체제를 무력으로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인 동시에, 체제가 유지됨으로써 파생되는 막대한 경제적 지대를 합법적으로 가장 크게 누리는 최상위 기득권 집단으로 변모했다. 엘리트들이 국가 경제의 핵심을 장악하고 합법적인 부를 축적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불확실한 군사 쿠데타나 체제 전복을 시도할 경제적, 정치적 유인은 완벽하게 소멸했다.

더 나아가 라울 체제의 진정한 학술적 가치는 형제 승계를 통해 벌어들인 시간을 활용하여 1인 지배를 영구화하지 않고, 정당 중심의 관료적·제도적 승계로의 점진적 이행을 추진했다는 데 있다. 피델 시대에 사문화되었던 쿠바 공산당 대회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정례화하여 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를 복원했고, 국가 평의회 의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임기를 2기(10년)로 제한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버트 호프만(Bert Hoffmann)은 이를 카리스마 지배에서 ‘관료적 사회주의로의 개혁’이라 명명하며, 혁명 1세대의 생물학적 수명이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치의 정당성을 ‘혁명의 신화적 기원’에서 ‘관료적 제도의 안정성’으로 체질 개선하려는 성공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²²⁾

그 결과 2018년과 2021년에 걸쳐, 카스트로 가문이나 군부 출신이 아닌, 1959년 혁명 이후에 태어나 철저히 당 관료 조직의 바닥에서부터 검증을 거치며 성장한 전문 관료 미겔 디아스카넬(Miguel Díaz-Canel)에게 국가 평의회 의장직과 공산당 제1서기직이 평화롭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양되었다. 신임 디아스카넬 체제는 더 이상 전임자들의 초인적 카리스마에 의존할 수 없기에,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이라는 사회주의 복지 제도를 사수하고 미국의 지속적인 제재에 맞서는 ‘항미 반제국주의’의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성과주의적 정당성을 창출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쿠바의 사례는 권위주의 정권이 어떻게 혈연(형제)이라는 비상 방어 기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가장 취약한 승계의 병목을 통과한 뒤, 중국에는 권력을 제도화하여 정권의 장기적 내구성을 진화시켜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교본이라 할 수 있다.

Generational Change”,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44(4), 645–650.

22) Hoffmann, Bert. 2016. “Bureaucratic Socialism in Reform Mode: The Changing Politics of Cuba’s Post-Fidel Era”, *Third World Quarterly*, 37(9), 1633–1638.

3. 중국: 정당 중심 제도적 승계의 공고화

중국 공산당은 현대 권위주의 정치사에서 특정 지도자 개인의 카리스마나 혈통에 의존하지 않고, 정당 중심의 고도화된 제도적 승계를 통해 정권의 장기적 내구성을 극대화했던 가장 성공적인 규범적 모델로 평가받아 왔다. 이러한 중국의 독특한 승계 모델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오쩌둥 시대의 1인 독재가 낳은 참혹한 역사적 교훈에 대한 엘리트들의 뼈저린 반성과 타협의 산물이다. 조영남의 중국 통치 체제 연구에 따르면, 마오쩌둥의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지배와 뒤이은 문화대혁명의 파국을 온몸으로 겪은 중국의 생존 엘리트들은, 덩샤오핑의 주도하에 권력의 극단적인 사유화를 방지하고 체제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교한 당내 헌정 관행을 구축했다.²³⁾ 이 제도적 승계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지탱되었다. 첫째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지도 체제이다. 둘째는 ‘칠상팔하(七上八下: 67세는 유임, 68세는 은퇴)’로 대변되는 엄격한 연령 제한과 국가주석직의 2기(10년) 연임 제한 규정이다. 셋째는 현직 최고 지도자가 후계자를 마음대로 지명하지 못하도록 원로들이 차차기 지도자를 미리 합의하여 지명하는 이른바 ‘격대지정(隔代指定)’의 불문율이다.

류상영은 이러한 중국의 제도적 승계 모델이 태자당,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 상하이방 등 당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거대 파벌들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권력을 평화적으로 분점할 수 있게 만든 고도의 포섭 기제였다고 분석한다.²⁴⁾ 이 승계의 물이 작동하는 동안 중국 엘리트 정치 공간에서는 승자독식이나 피의 숙청이 사라졌다. 파벌 간의 권력 안배가 예측 가능해지고 철저한 행정적 성과주의에 기반한 관료 충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엘리트들은 차기 승계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력이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엘리트들은 체제를 파괴하는 쿠데타나 파벌 투쟁 대신 공산당 주도의 고속 경제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매진할 수 있었고, 이는 곧 대중에게 성과주의적 정당성을 입증하며 체제의 장기적 내구성을 뒷받침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2012년 제18차 당대회를 통해 등장한 시진핑 체제는 이러한 제도적 승계 모델의 근간을 해체하며 중국 권위주의 체제를 거대한 구조적 변곡점으로 몰아넣었다. 시진핑은 집권 초기부터 성역 없는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보시라이, 저우용강 등 잠재적 라이벌과 타 파벌의 핵심 인물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함으로써 당내 견제 세력을 소멸시켰다. 데이비드 샴보(David Shambaugh)가 중국 공산당의 장래를 분석하며 가장 위험한 쇠퇴

23) 조영남. 2014. 『중국의 통치 체제: 공산당과 국가 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85-92.

24) 류상영. 2015.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내구성과 엘리트 정치의 제도화”, 『중소연구』, 제39권 2호, 112-128.

시나리오로 경고했던 ‘정당의 쇠퇴와 1인 독재로의 퇴행’이 현실화된 것이다.²⁵⁾ 결정적으로 2018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국가 주석의 연임 제한 조항을 폐기하고,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 지으며 격대지정의 관행마저 무력화시켰다. 이는 덩샤오핑 이후 30여 년간 권위주의 승계의 딜레마를 억제해 온 제도의 족쇄를 권력자 스스로 끊어버린 사건이다.

이러한 승계 룰의 파괴는 단기적으로는 시진핑 개인의 권력을 절대화하는 데 성공했으나, 권위주의 내구성의 본질적 위협인 엘리트 간의 불확실성을 다시금 폭발 직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승계의 룰이 사라진 엘리트 사회에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숙청의 공포와 침묵만이 남게 되었다. 문흥호는 이러한 제도적 정당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진핑 체제가 채택한 새로운 방어 기제가 바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억압과 이데올로기 조작이라고 분석한다.²⁶⁾ 중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안면 인식 기술을 결합한 사회적 신용 시스템과 대규모 디지털 감시망인 천망(天網)을 구축하여, 엘리트의 파벌 형성과 대중의 불만 표출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는 전무후무한 ‘스마트 권위주의(Smart Authoritarianism)’를 완성했다. 또한 과거 공산당이 내세웠던 고속 경제 성장이라는 정당성이 한계에 부딪히자, 시진핑 체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중국몽)이라는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체제 결속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주입하고 있다. 대만 통일 문제에 대한 강경한 군사적 압박과 전랑 외교는 결국 승계의 룰을 파괴한 1인 지배 체제가 내부의 억눌린 불만을 외부의 적대감으로 돌려 체제 내구성을 연장하려는 치밀한 거대 전략적 방어 기제라 할 수 있다.

4. 이란: 신권적 지명

중국이 정당의 규범과 세속적 경제 성과를 통해 내구성을 다져왔다면, 이란은 초월적인 이슬람 시아파의 종교적 법통과 혁명 이데올로기를 헌법적 권력 기구와 교묘하게 결합한 독보적인 신권적 승계 모델을 통해 체제의 생존을 담보해 왔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를 축출한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Ayatollah Ruhollah Khomeini)는 국가의 모든 주권이 신에게 있으며, 신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는 최고위 이슬람 성직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법학자 통치론(Velayat-e Faqih)을 헌법에 명문화했다. 사이드 아미르 아르조만드(Said Amir Arjomand)는 이란의 체제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

25) Shambaugh, David. 2008. *China's Communist Party: Atrophy and Adapt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45-52.

26) 문흥호. 2017. “시진핑 체제의 권력구조 재편과 권위주의의 진화: ‘핵심’의 복원과 ‘제도’의 변용”, 『중소연구』, 제41권 2호, 140-145.

민이 직접 선출하는 세속적 공화제의 외피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인 군사, 외교, 사법권의 최종 통제권은 종교적 무오류성을 지닌 최고지도자(Rahbar)에게 집중된 극단적인 이중 권력 구조라고 규정했다.²⁷⁾ 이러한 구조는 대중의 불만이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선출직인 대통령에게 전가하면서, 체제의 진짜 주인인 신정 그룹은 그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 정당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탁월한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기능한다.

이란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이 엘리트 역학을 조율하는 핵심 헌법 기구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88명의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이다. 전문가 회의는 현직 최고 지도자의 유고 시 차기 지도자의 종교적 학식, 정치적 판단력, 그리고 혁명에 대한 충성도를 심사하여 후계자를 선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1989년 호메이니 사후 현재의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로의 권력 승계 국면에서 서방의 많은 정보기관들은 이란 군부의 개입이나 혁명 세력 내 파벌 다툼으로 인한 내전을 예측했다. 그러나 전문가 회의는 불과 24시간 만에 하메네이를 차기 최고지도자로 신속하게 선출했다. 비록 하메네이가 당시 최고위 성직자(대아아틀라) 계급에 미치지 못하는 정치적 약점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계가 무혈로 마무리된 것은, 이 선출 과정 자체가 세속적 권력 투쟁이 아니라 ‘신의 대리인’을 찾는 성스러운 신학적 의식으로 치환되었기 때문이다. 이란 체제 내에서 전문가 회의의 결정을 거부하고 승계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단순한 반역을 넘어 이슬람 교리에 대한 ‘신성 모독’이자 ‘적그리스도적 행위’로 규정되므로, 세속 엘리트나 패배한 정파가 무력을 동원해 반발할 명분과 공간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하지만 종교적 이데올로기 하나만으로 수십 년간 지속되는 서방의 가혹한 경제 제재와 대중의 불만을 모두 억누를 수는 없다. 모흐센 밀라니(Mohsen M. Milani)는 이란의 신권 모델이 실질적인 체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물리적 기반을 정규군과 별도로 조직된 체제 보위용 엘리트 무력 기구인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고도화된 경제적 지대 독점 기제에서 찾는다.²⁸⁾ 호메이니 시절 단순한 이데올로기 민병대로 출발했던 혁명수비대는 하메네이 체제를 거치며 건설, 에너지, 통신, 항만, 밀무역 등 이란 국가 경제의 30% 이상을 장악한 거대한 기업-군사 카르텔 ‘하탐 알안비야(Khatam al-Anbiya)’로 진화했다. 즉, 혁명수비대는 최고지도자가 주도하는 신권 통치 모델이 유지되어야만 자신들의 막대한 부와 배타적 권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적 걸착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승계 국면이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때, 혁명수

27) Arjomand, Said Amir. 2009. *After Khomeini: Iran Under His Successo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5-42.

28) Milani, Mohsen M. 1994. *The Making of Iran's Islamic Revolution: From Monarchy to Islamic Republic*, Boulder: Westview Press, 210-215.

비대와 산하 바시지(Basij) 민병대는 한 치의 분열도 없이 최전선에 나서 무자비한 유혈 진압으로 체제를 방어한다. 종교적 헌신이라는 표면적 명분 아래 경제적 이권의 보장이 라는 압도적인 세속적 실리가 엘리트들을 완벽하게 포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26년 2월 말 발발한 ‘미국-이란 전쟁’은 이란의 이 고도화된 제도적 승계 모델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외부 충격으로 작용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군사 작전(작전명: 장대한 분노)으로 촉발된 대규모 공습 속에서, 이란 정권의 구심점이었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 최고지도자가 전격적으로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밀란 스볼릭(Svolik)이 권위주의 붕괴의 가장 치명적인 변수로 지적했던 명확한 후계 구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갑작스러운 통치자 부재가 전시 상황이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현실화된 것이다.²⁹⁾ 당초 서방의 정보기관과 주요 언론들은 체제의 2인자이자 하메네이의 정치적 분신으로 불리던 알리 라리자니(Ali Larijani) 최고국가안보 회의 사무총장이 과도 체제를 이끌거나, 차기 권력을 둘러싼 이란 내부의 파벌 다툼으로 인해 정권이 급격히 붕괴할 것이라 예측했다.³⁰⁾

이러한 전격적인 세습적 승계가 이란 정권의 내구성에 미친 단기적인 효과는 강압적 안정화였다. 전시 상황에서 혁명수비대에게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승계 과정이 길어지면서 권력의 공백이 발생하거나 온건파가 득세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이 해체되는 것이었다. 국가 경제의 3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혁명수비대 엘리트들은 차남 모즈타바를 옹립함으로써 기존 하메네이 체제의 강경 노선(대미/대이스라엘 항진)과 자신들의 경제적 지대를 그대로 연장할 수 있었다. 즉, 모즈타바라는 ‘아들’의 존재는 엘리트 집단에게 있어 차기 권력 지형의 불확실성을 단숨에 제거해 주는 가장 명확한 합의점이 되었다. 혁명수비대는 아버지의 통치 자산을 물려받은 아들을 내세워 군부 내부의 쿠데타 유인을 억제하고, 전쟁 장기화라는 국가적 총동원령을 명분 삼아 승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속 엘리트들의 반발을 전시 계엄과 바시지(Basij) 민병대의 무자비한 유혈 진압으로 압살했다. 외부의 위협이 내부의 승계를 정당화하는 안보화 전략이 완벽하게 적중한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모즈타바 하메네이로의 세습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수십 년간 지탱해 온 가장 중요한 기둥인 신학적 정당성에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혔다. 과거 1989년 호메이니에서 하메네이로의 1차 승계가 대중에게 ‘신의 대리인을 선출하는 거룩한 과정’으로 어느 정도 수용되었다면, 이번 차남으로의 승계는 대중의 눈에 철저히 세속적인 권력의 사유화이자 군부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으로 비칠 수밖에 없

29) Svolik, Milan W. 2012.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1014500108?input=1195m>(검색일: 2026.04.23.).

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진 히잡 시위를 통해 체제의 종교적 억압에 강력하게 저항해 온 이란의 청년 세대와 여성들에게, 이슬람 최고 권력의 ‘세습’은 체제가 지니고 있던 도덕적 위선을 스스로 증명한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법학자 통치론이라는 고상한 이데올로기는 꺾데기만 남았고, 그 실체는 군부의 경제적 탐욕을 보호하기 위한 혈연 독재임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2026년 이란의 권력 승계 사태는, 고도로 제도화된 신권 정치가 극단적인 외부 무력 충돌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 규범적 제동 장치를 상실하고 군부의 지대 독점과 혈연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세습 독재로 퇴행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이라는 외부의 ‘절대 악’이 존재하기에 억압적 내구성이 강제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종료된 이후 경제적 파탄이 가중될 경우, 세습으로 인해 완전히 증발해 버린 체제 정당성은 억눌린 대중의 거대한 반정부 봉기를 촉발하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IV. 권위주의 승계 유형과 정권 내구성의 비교 분석

1. 엘리트 포섭 및 결속력의 차이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의 임계점을 넘느냐, 아니면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내구성을 연장하느냐를 결정짓는 1차적 관문은 권력 승계기라는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 전개되는 엘리트 역학관계에 있다. 독재자와 그를 옹위하는 핵심 엘리트 연합은 일상적인 통치기에는 권력과 부를 나누며 공생하지만, 최고 권력자의 교체가 임박하는 순간 서로를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는 홉스적 자연상태로 돌변한다. 앞선 4개국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가장 중요한 함의는, 성공적인 권력 승계란 곧 엘리트들이 겪는 차기 권력 지형에서의 생존 불확실성을 어떻게 통제하고, 이들을 새로운 통치 질서 내로 포섭하기 위해 어떠한 권력 분배 구조를 설계했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수직적 가문 세습 모델은 엘리트 결속력을 강제하는 데 있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극단적인 구조적 완결성을 지닌다. 북한의 세습은 단순히 아버지의 권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권력의 대물림 현상이 아니다. 이는 수령의 핏줄(백두혈통)과 국가 안보, 그리고 핵심 엘리트의 생존을 완벽하게 하나의 유기체로 묶어버리는 운명 공동체의 강제적 창출 과정이다. 일반적인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지도자가

교체될 때 엘리트들이 새로운 파벌을 형성하거나 군부 쿠데타를 모의할 유인이 존재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러한 파벌 형성이 구조적으로 원천 차단된다. 왜냐하면 '백두혈통'이라는 승계의 룰 자체가 엘리트들에게 다른 대안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드는 압도적인 합의의 초점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최상위 엘리트들에게 있어 통치 가문의 몰락이나 체제 전복은 단순히 정치적 기득권의 상실이나 직위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문 전체의 물리적 처형과 절멸을 의미한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라는 거대한 신경망을 통해 엘리트들은 철저히 파편화되어 상호 감시 체계에 놓이게 되며, 결국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은 새로운 후계자를 향한 맹목적인 충성 경쟁뿐이다. 공포와 생존 본능을 매개로 한 북한의 포섭 기제는, 최고지도자의 개인적 역량이 부족하거나 국가 경제가 과탄 나는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엘리트 내부의 분열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로 작용했다.

반면 쿠바의 수평적 형제 승계는 북한과 같이 혈연의 신비화에 의존하지 않고, '혁명 1세대'라는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세속적인 이익 동기화를 결합하여 엘리트층을 포섭했다. 피델 카스트로에서 라울 카스트로로의 권력 이양이 군부의 반발 없이 극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은, 승계자가 군부(FAR) 출신이었다는 점과 더불어 군부 산하의 거대 국영 카르텔인 가에사(GAESA)를 통해 엘리트들에게 국가 핵심 경제의 지대를 배타적으로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쿠바의 엘리트들은 체제가 붕괴하거나 승계 과정에서 내전이 발생할 경우,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막대한 부(관광, 향만, 무역 등)가 송두리째 몰수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혁명 동지적 의리라는 명분 뒤에는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엘리트들의 철저한 경제적 실리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는 쿠바 정권이 형제 승계라는 과도기를 거쳐 관료제적 집단 지도 체제로 연착륙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물적 토대가 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중국과 이란은 특정 가문이나 혁명 세대라는 인적 네트워크를 넘어, 고도로 제도화된 국가 기구를 통해 엘리트의 결속을 도모한다는 공통점을 지나 그 작동 원리는 상이한 궤적을 그린다. 과거 시진핑 이전 중국 공산당의 제도적 승계 모델(격대지정, 연령 제한, 집단 지도 체제)은 권력을 특정 개인이 사유화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당내 다양한 파벌이 예측 가능한 규칙에 따라 권력을 안배받는 합의제적 권력 분배시스템이었다. 철저한 행정적 성과주의에 기반한 관료 승진의 예측 가능성은 엘리트들로 하여금 쿠데타와 같은 모험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공산당 주도의 경제 성장이라는 체제 내 충성 경쟁에만 매진하도록 유도했다. 승자독식이 배제된 이 시스템은 엘리트의 치명적 분열을 막고 체제의 경제적 복원력을 극대화했다. 그러나 최근 1인 지배 체제로의

회귀와 함께 이러한 승계의 규범이 일방적으로 파괴되면서, 중국의 엘리트들은 다시금 언제 닥칠지 모르는 숙청의 공포와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되었다. 제도를 통한 신뢰가 붕괴한 자리에 강압적 맹종만이 남게 되면서, 겉보기에는 결속력이 강화된 듯 보이나 이면에는 체제 유연성의 상실이라는 구조적 딜레마가 잉태되었다.

이란의 신권 정치 모델은 전문가 회의라는 종교적 기구를 통해 승계의 신학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라는 무력 기구에 막대한 경제적 특권을 위임하는 군부-신권 유착 기제를 활용한다. 최고지도자의 승계 과정에서 이란의 세속 엘리트들이나 군부가 개입하지 못하는 표면적 이유는 그것이 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지만, 실질적 이유는 신정 체제가 무너질 경우 혁명수비대가 장악하고 있는 지하 경제와 거대 국영 기업의 이권이 함께 붕괴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와의 전쟁(미국-이란 충돌 등)과 같은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신학적 승계의 룰이 무너지고 군부의 입김이 작용한 세습적 승계로 퇴행하는 현상은, 이란 체제의 진정한 결속력이 종교적 맹신이 아니라 군부 엘리트의 지대 수호 본능에 있음을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결국 권위주의 체제의 엘리트 포섭은 이데올로기적 명분(혈통, 혁명, 종교)의 주입과 더불어, 핵심 엘리트 집단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정교한 카르텔의 구축이 완벽하게 결합될 때만 그 내구성이 완성됨을 알 수 있다.

2. 체제 위기 대응과 억압 기제의 작동

성공적인 권력 승계를 통해 엘리트 포섭을 마친 신임 지도자라 할지라도 권위주의 정권의 내구성이 영구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교체됨에 따라 선대 통치자가 지녔던 원초적 카리스마는 필연적으로 고갈되며, 장기적인 경제 침체나 외부 세계로부터의 자유주의적 정보 유입은 신임 지도자의 통치 정당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체제 위기 상황에서 정권의 붕괴를 막아내는 최후의 방어선이 바로 각 국가의 승계 모델 특성에 맞게 다변화되고 진화된 억압 및 통제 기제이다. 앞선 4개국의 비교 분석은, 현대 권위주의 정권들이 체제 방어를 위해 단순한 물리적 폭력과 경찰력을 동원하는 1차원적 단계를 넘어 대중의 인지 자체를 조작하고 사회 구조를 디지털화하여 감시하는 고도화된 방식으로 억압 기제를 진화시켜 왔음을 실증한다.

가문 세습을 통해 가장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인 권력 구조를 구축한 북한은, 아이러니하게도 체제 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대중의 뇌구조와 사상 체제 자체를 개조하려는 가장

고도화된 사상통제 전략을 구사한다. 김정은 체제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군부의 반란이나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공격이 아니라, 장마당을 통해 자본주의적 생존 방식을 터득한 세대가 외부 정보와 문화에 노출되어 백두혈통 이데올로기의 허구를 깨닫는 인지 부조화 현상이다. 선대가 누렸던 항일 무장투쟁이나 전후 복구라는 신화적 성과가 부재한 상황에서, 체제는 주민들의 사상적 이반을 막기 위해 억압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만 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수십 년간 북한 헌법의 최고 이념이자 체제 유지의 핵심 명분이었던 ‘조국 통일’ 노선을 완전 폐기하고, 남북 관계를 완전한 타자이자 교전국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면 재규정한 거대 전략의 선회이다. 이는 남한을 동족이 아닌 궤멸시켜야 할 ‘절대 악’으로 설정함으로써 대중의 마음속에 극단적인 공포와 적개심을 이식하고, 남한의 문화를 소비하거나 동경하는 행위 자체를 국가에 대한 반역이자 이적 행위로 낙인찍어 무자비하게 처벌하기 위한 선제적 인지 조작이다. 외부의 적을 실존적 위협으로 과장하고 상시적인 전쟁 공포를 주입함으로써 내부의 불만을 짓누르는 이러한 사상적 봉쇄는, 가문 세습 모델이 붕괴 압력을 견뎌내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극단적 형태의 체제 방어 기제이다.

중국 역시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데올로기 조작과 전면적인 통제를 가동하고 있으나, 북한이 정보의 완전한 차단과 아날로그적인 사상 투쟁에 의존한다면 중국은 21세기 최첨단 IT 기술을 권위주의에 접목시킨 디지털 스마트 검열을 활용한다. 과거 경제 성장이라는 뚜렷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확보했던 중국 공산당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1인 지배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내부적 긴장이 고조되자 통제의 방식을 사후 진압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안면 인식 기술을 총동원한 대규모 감시망과 사회적 신용 시스템은 엘리트의 비밀스러운 파벌 모의나 대중의 집단 행동 징후를 알고리즘으로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한다. 체제에 비판적인 언동을 하는 순간 물리적 체포 이전에 금융 거래, 교통 이용, 인터넷 접근 등 일상적인 사회생활 자체가 디지털적으로 마비되는 이 정교한 통제망은, 대중으로 하여금 스스로 검열하게 만드는 내면화된 억압을 창출했다. 나아가 경제적 성과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팽창적 민족주의를 체제 결속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주입하고, 대외적으로 강경한 외교 노선을 전개함으로써 내부의 시선을 외부의 갈등으로 돌려 체제 내구성을 연장하고 있다.

반면 이란과 쿠바는 외부의 가혹한 경제 제재와 대중의 만성적인 민생고라는 공통된 위기 속에서도 각자의 정당성 모델에 기인한 상이한 억압 양상을 보여준다. 이란의 신권 체제는 종교적 율법과 억압이 결합된 형태를 띤다. 특히 청년 세대와 여성들의 세속주의

적 열망이 거대한 반정부 시위로 폭발하여 체제의 종교적 근간 자체를 뒤흔들 때, 이란 정권은 북한처럼 대중의 인지를 완전히 통제하거나 중국처럼 정교한 사전 차단망을 가동하기보다는 체제 보위 민병대와 혁명수비대를 동원한 사후적이고 무자비한 물리적 유혈 진압에 의존한다. 이는 통치 이데올로기와 대중의 실제 가치관 사이에 발생한 거대한 괴리를 오직 압도적인 폭력의 투사를 통해 공포로 덮으려는 시도이며, 억압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체제의 도덕적 정당성은 더욱 급격히 붕괴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반면 쿠바는 혁명 이후 지속된 미국의 금수 조치라는 외부적 요인을 역이용하여 체제를 수호한다. 쿠바 체제는 경제 실패의 모든 책임을 제국주의의 압박으로 전가할 수 있는 강력한 미 명분을 가지고 있으며, 반체제 인사나 시위 주동자를 가혹하게 처형하기보다는 체제 밖으로 추방하거나 정보기관을 통해 선택적으로 격리하는 상대적으로 연성적이고 체제 보위적인 통제 방식을 취한다. 이는 카리스마적 혁명 세대에서 관료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유혈 사태가 체제의 남은 정당성마저 파괴할 수 있음을 인지한 결과이다.

권위주의 체제의 위기 대응과 억압 기제는 각 정권이 지닌 정당성의 원천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정당성의 근거가 신화적이고 혈통적인 1인 독재에 집중될수록 대중의 비합리적 사고 자체를 말살하려는 인지 통제와 선제적 감시망이 극대화되는 반면, 정당성이 종교적 권위나 관료적 집단주의에 근거할 경우 선택적 억압과 물리적 진압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 권위주의 승계-내구성 모델

본 연구에서 수행한 4개국의 권력 승계 과정, 엘리트 포섭 역학, 그리고 위기 시 억압 기제에 대한 교차 분석을 종합해 볼 때, 현대 권위주의 정권의 내구성은 결코 단일한 변수나 단순한 폭력의 총량으로 설명될 수 없는 고도의 복합적 산물임이 입증된다. 권위주의 체제의 생존은 권력 승계의 규범화 및 제도화 수준과 체제 정당성의 핵심 원천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상호 작용하며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권위주의 정권들이 치명적인 승계 딜레마를 돌파하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화시켜 온 거시적 생존 궤적을 설명하는 ‘권위주의 승계-내구성 다중 모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한다.

첫째, 폐쇄적 이데올로기-세습 모델이다. 북한으로 대변되는 이 모델은 단기적인 정권 안정화와 위기 돌파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강력한 억압적 내구성을 발휘한다. 승계의 불확실성을 혈통이라는 생물학적 절대 기준으로 수렴시키고, 엘리트들을

사활적 운명 공동체로 결박함으로써 내부 쿠데타나 파벌 형성의 여지를 완벽하게 소멸시킨다. 그러나 이 모델의 치명적 한계는 고립된 이데올로기의 구조적 취약성에 있다. 혈통의 신비화는 세대가 거듭될수록 자연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상통제와 정보 차단을 극대화하면 할수록 국가는 외부 세계의 변화와 단절되어 경제적 자생력을 상실하는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진다. 이는 강철처럼 단단해 보이나,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이나 거대한 인지적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 유연하게 휘어지지 못하고 한 번에 산산조각 날 수 있는 가장 경직된 내구성 모델이다.

둘째, 제도적 합의 모델이다. 과거 시진핑 1기 이전까지의 중국 공산당이 구현했던 이 모델은 장기적인 체제 내구성과 국가의 복원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장 진화된 형태의 권위주의 생존 전략이었다. 파벌 간 권력 분점의 물을 명확히 하고 철저한 성과주의에 기반하여 관료층을 승진시킴으로써, 엘리트의 충성을 폭력이 아닌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확보했다. 이 모델은 경제 성장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창출하며 유연하게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 그러나 권력 공유의 규칙이 특정 개인의 권력욕에 의해 파괴되고 1인 집중 체제로 경로 이탈이 발생하는 순간, 제도가 주었던 신뢰는 소멸하고 억눌렸던 승계의 딜레마가 폭발적으로 귀환한다. 제도를 상실한 체제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한대의 자원을 스마트 억압망에 쏟아부어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체제의 혁신 역량을 질식시키는 구조적 취약성을 배태한다.

셋째, 하이브리드 이중 권력 모델이다. 이란의 신권 정치와 쿠바의 과도기적 군부-당 연합 정권이 속하는 이 범주는, 초월적인 종교 교리나 혁명의 카리스마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접착제를 핵심 무력 기의 배타적 경제 기득권과 교묘하게 결합시킨 절충형 모델이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헌법적 선거 기구나 당 대회를 통해 승계의 정당성을 포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권 카르텔화된 무력 기구가 체제의 최후 보루로 작동하는 구조를 갖는다. 이 모델은 미국의 전면적인 경제 제재와 대내적 시위라는 극단적인 외부 압력 속에서도 핵심 엘리트가 분열하지 않는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통치 이데올로기가 사회의 빠른 세속화나 세대교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대중적 지지를 상실할 경우, 혹은 전쟁과 같은 통제 불능의 외부 충격에 직면할 경우, 이 체제들은 그간 유지해 온 제도적 외피를 찢어버리고 군부 주도의 노골적인 무력 독재나 비정상적인 세습으로 급격히 퇴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심층 비교 분석은 현대 권위주의 정권들이 보여주는 권력 승계와 내구성 유지 과정이 단순히 역사 발전 단계의 미개함이나 과도기적 지체가 아님을 시사한다. 이 체제들은 자신들이 직면한 엘리트 권력 공유의 딜레마와 대중 통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득권의 포섭 방식과 대중 인지 통제의 패러다임을 당면한 환경에 맞추어 끊임없이 파괴하고 재창조하는 고도의 ‘적응적 진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21세기 권위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항으로서 소멸해 가는 잔재가 아니라, 억압과 포섭의 비율을 정교하게 조율하며 스스로의 내구성을 재생산해 내는 생존 기계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정확히 해부하는 것은 향후 국제 정치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표 2〉 권위주의 승계-내구성 다중 모델

도출된 모델	국가	핵심 체제 방어 기제	내구성의 강점	구조적 딜레마
폐쇄적 이데올로기-세습 모델	북한	- 혈통 강제 - 완전한 정보 차단 및 사상 통제	단기적인 승계 불확실성 완벽 제거	외부 정보 유입시 사상적 붕괴 위험
제도적 합의 모델	중국	- 파벌 간 룰에 따른 권력 분점 - 디지털 스마트 검열	예측 가능한 관료 충원을 통한 장기적 내구성 및 경제 복원력 극대화	1인 권력 집중으로 기존 승계 룰 파괴 시 제도적 신뢰 붕괴
하이브리드 이중 권력 모델	이란 쿠바	- 신권/혁명 이데올로기의 헌법적 포장 - 무력 기구의 권력 독점	외부의 가혹한 제재와 압력 속에서 엘리트 카르텔이 분열하지 않는 탄력성	군부 주도의 비정상적 세습으로 퇴행 위험

출처: 저자 작성

V. 결론

본 연구는 21세기 현대 정치에서 권위주의 정권들이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도 붕괴하지 않고 스스로의 내구성을 연장해 내는 핵심 동력을 ‘권력 승계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방어 기제에서 찾고자 했다. 북한, 쿠바, 중국, 이란이라는 4개의 대표적인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교차 분석 결과, 권력 승계는 단순히 지도자의 얼굴이 바뀌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체제의 모순이 폭발하는 가장 취약한 병목 구간이며, 이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 각 국가는 고도의 적응적 진화를 수행해 왔음이 입증되었다. 북한은 수직적 가문 세습을 통해 엘리트 간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들을 사활적 운명 공동체로 결박하는 한편, 외부 정보 유입에 따른 정당성의 훼손을 방어하기 위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면 재규정하는 극단적인 인지전을 수행하고 있다. 쿠바는 피델에서 라울로 이어지는 혁명 1세대의 수평적 형제 승계와 군부(FAR)의 경제적 지대 독점을 통해 1인 카리스마 지배의 붕괴 위기를 넘긴 후, 중국에는 관료제적 집단 지도 체제로 연착륙하는 고도의 과도기적 생존 전략을 보여주었다. 과거 중국 공산당은 파벌 간의 권력 분점과 철저한 성과주의에 기반한 제도적 승계 룰을 확립하여 내구성을 극대화했으나, 최근 시진핑 3연임 체제의 등장과 함께 승계의 룰이 파괴됨으로써 엘리트 내부의 억눌린 공포가 부활했고 이를 디지털 스마트 검열망(천망)이라는 억압 기술로 통제하는 경로 이탈의 한계를 노출했다. 마지막으로 이란은 법학자 통치론이라는 신학적 정당성과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의 경제적 기득권을 결합한 이중 권력 구조로 내구성을 방어해 왔으나, 2026년 미국-이란 전쟁이라는 통제 불능의 외부 충격 속에서 최고지도자의 급사와 함께 군부가 주도하는 '하이브리드 세습 군사 독재'로 급격히 퇴행함으로써, 이데올로기가 대중의 세속화와 괴리될 때 체제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질되는지를 실증했다. 요컨대 현대 권위주의의 내구성은 권력 승계의 규범화 수준과 정당성의 원천에 따라 '폐쇄적 이데올로기-세습 모델', '제도적 합의-성과주의 모델', '하이브리드 이중 권력 모델'로 다변화되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권위주의 승계 역학을 규명하는 데 있어 몇 가지 뚜렷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사례 선정의 편향성 문제이다. 본 연구는 체제 복원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4개의 국가(북한, 중국, 쿠바, 이란)에 집중된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도출된 다중 모델을 중동의 전근대적 왕정 국가나 아프리카,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의 신흥 개인주의 독재 정권에까지 보편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둘째, 정권 내구성을 측정하는 매개변수(엘리트 결속력, 억압 강도, 정당성)들을 계량화된 지표로 검증하지 못하고 질적 해석에 의존했다는 점이다. 특히 엘리트 내부의 파벌 갈등이나 혁명수비대, 가에사(GAESA) 등 군부 카르텔의 경제적 지대 규모에 대한 접근은 해당 체제들의 극단적인 정보 통제에 의해 파편적인 2차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이란의 사례에서 보듯 2026년 발발한 전쟁이라는 현재 진행형의 외부 충격이 승계 룰을 파괴한 사태는 아직 그 역사적 궤적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모즈타바 하메네이로의 군부 주도 세습이 장기적인 내구성 강화로 이어질지 혹은 대중 봉기를 촉발하는 체제 붕괴의 서막이 될지는 후속 연구를 통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비교정치학 및 대북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학술적, 실천적 시사점을 던진다. 향후 권위주의 연구는 본 논문에서 제시된 '디지털 스마트 통제'라는 변수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빅데이터 감시망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이 독재자들로 하여금 과거보다 훨씬 적은 물리적 비용으로 대중의 저항을 사전에 억제하고 엘리트의 충성을 감시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독재자의 딜레마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과 권위주의 승계의 결합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은 차세대 정치학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승계기에 외부 세계가 가하는 무차별적인 경제 제재나 압박은 오히려 엘리트들을 운명 공동체로 결속시키고 대중 억압의 명분을 제공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참고문헌

- Acemoglu, Daron and Robinson, James A. 2006. *Economic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rjomand, Said Amir. 2009. *After Khomeini: Iran Under His Successors*, Oxford University Press.
- Brownlee, Jason. 2007. *Authoritarianism in an Age of Democrat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ddes, Barbara. 1999. "What Do We Know About Democratization After Twenty Year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Vol.2.
- Hoffmann, Bert. 2016. "Bureaucratic Socialism in Reform Mode: The Changing Politics of Cuba's Post-Fidel Era", *Third World Quarterly*, 37(9).
- LeoGrande, William M. 2012. "After Fidel: The Communist Party of Cuba on the Brink of Generational Change",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44(4).
- Levitsky, Steven, & Way, Lucan A. 2013. "The Durability of Revolutionary Regimes", *Journal of Democracy*, 24(3).
- Milani, Mohsen M. 1994. *The Making of Iran's Islamic Revolution: From Monarchy to Islamic Republic*, Boulder: Westview Press.
- Nathan, Andrew J. 2003. "Authoritarian Resilience", *Journal of Democracy*, Vol.14, no.1.
- Shambaugh, David. 2008. *China's Communist Party: Atrophy and Adapt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mith, Benjamin, and Joseph Fridman. 2016. "Dynastic Succession in Modern Autocracies". *World Politics*, Vol.68, no.1.
- Svolik, Milan W. 2012.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llock, Gordon. 1987. *Autocracy*,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고유환. 2013. "북한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와 지속가능성", 『국제정치논총』, 제53집 3호.
- 류상영. 2015. "중국 권위주의 체제의 내구성과 엘리트 정치의 제도화", 『중소연구』, 제39권 2호.
- 문홍호. 2017. "시진핑 체제의 권력구조 재편과 권위주의의 진화: '핵심'의 복원과 '제도'의 변용", 『중소연구』, 제41권 2호.

- 박형중. 2014. 『북한의 통치체제와 국가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 정성장. 2011.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 이념, 기구』, 서울: 한울.
- 조영남. 2014. 『중국의 통치 체제: 공산당과 국가 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하상식. 2015. “쿠바 권력승계와 체제변동의 정치적 역학: 피델 카스트로에서 라울 카스트로로의 이행을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 제17권 2호.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1014500108?input=1195m>(검색일: 2026.04.23).

【 Abstract 】

A Comparative Analysis of Power Succession Models and Regime Durability in Authoritarian Regimes: Focusing on the Cases of North Korea, China, Cuba, and Iran

Kwon, JiMin · Gu, BonYun · Jung, HoKyung

Modern authoritarian regimes have demonstrated remarkable regime stability without collapsing, despite the pressures of global democratization and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how authoritarian states have evolved regime defense mechanisms to control uncertainty during periods of succession and prolong regime durability. To this end, this study selected and cross-analyzed four countries—North Korea, Cuba, China, and Iran—each with distinct historical trajectories and ideologies.

The case analysis reveals that the survival of authoritarian regimes shows stark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level of succession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sources of legitimacy, demonstrating continuous adaptive evolution. First, North Korea has bound its elite class into a vital “community of fate” through vertical dynastic succession. Second, Cuba navigated the potential collapse of one-man rule by combining horizontal fraternal succession within the first generation of the revolution—from Fidel to Raúl Castro—with the military's monopoly on economic rents, ultimately presenting a successful transitional model that soft-landed into a bureaucratic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Thir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previously maximized its durability by establishing predictable intra-party succession norms based on power-sharing among factions and meritocracy; however, these succession rules have been dismantled with the recent regression to Xi Jinping's one-man rule. Fourth, Iran has maintained a dual power structure through theocratic designation based on the Guardianship of the Islamic Jurist (Velayat-e Faqih) and economic collusion with the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IRGC). Nevertheless, amid the uncontrollable

external shock of the 2026 US-Iran War, it lost its existing norms and rapidly regressed to a military-led “hereditary succession,” demonstrating how a regime turns violently repressive when its ideology becomes alienated from a secularizing public.

By synthesizing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four countries, this study derives an “Authoritarian Succession-Durability Multi-Model” that explains the survival dynamics of modern authoritarianism. This research holds significant value in expanding the boundaries of comparative politics by identifying the evolving repressive paradigms of authoritarian regimes.

Key Words : Power Succession, Authoritarian Durability, North Korea, Iran, China

